

보 도 해 명 자 료
(' 18. 6. 19)

제 목 : '탈원전'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

('18. 6. 19, 조선비즈)

1. 기사내용

- ☐ 문재인 정부는 '탈원전'이라는 대선 공약 실천에 급급, 원자력 산업을
고사시키고 있고, 원전을 없애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·석탄의 비중은 낮추고,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높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 바 고용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

- ☐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,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 국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

- ‘재생에너지 3020’ 계획에 따라, ‘22년까지 태양광·풍력 분야에 11.8GW의 신규설비가 설치될 계획이며, 이는 약 14만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

* **현재 24기(설비용량 22.5GW)의 원전이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산업에는 총 500여개 기업(제조·건설·서비스 등 포함)에 35,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음**
(원자력산업실태 조사, 2017년 과기정통부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
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19)

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
윤재웅 사무관(044-203-5373)